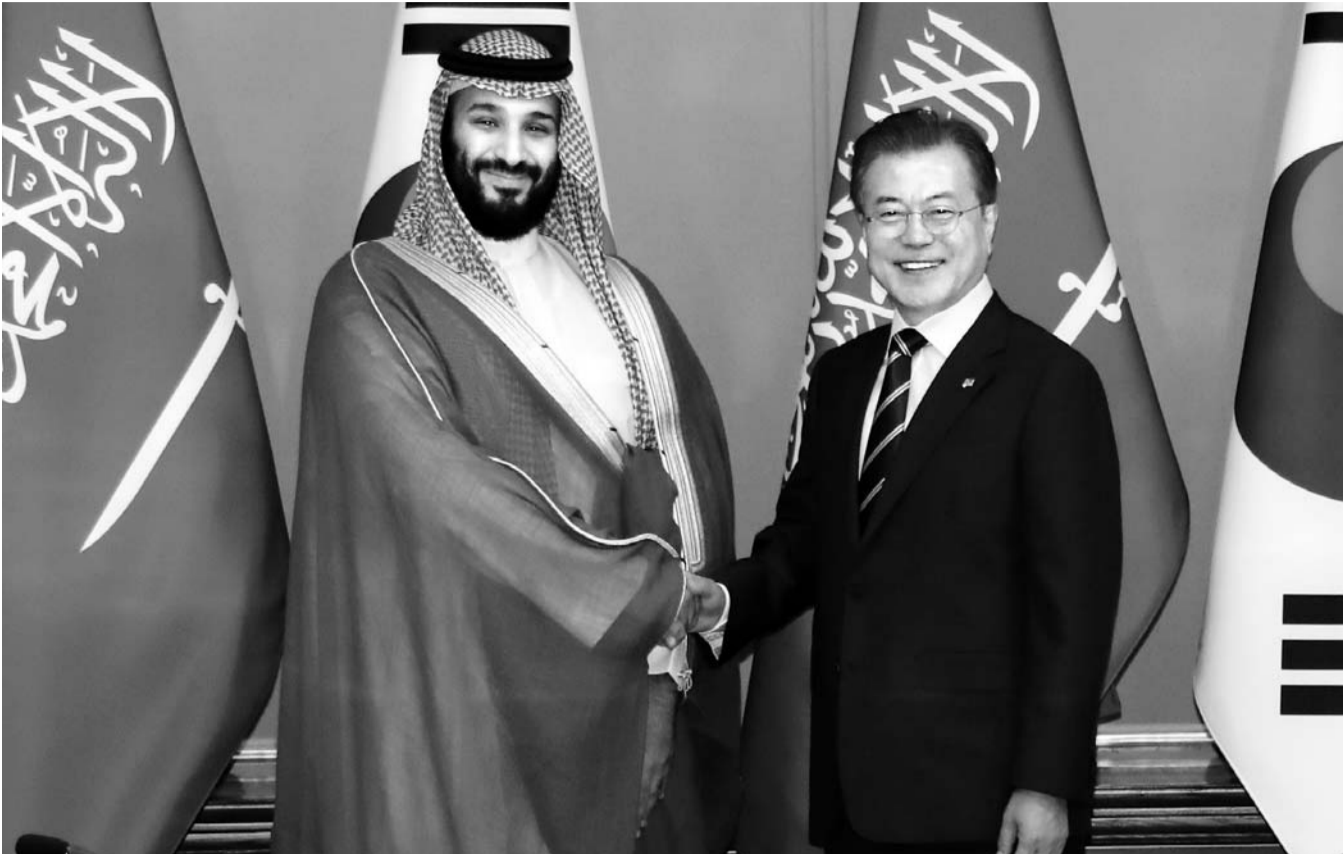


〈사우디 왕세자〉

# 문대통령-빈 살만 회담 “사우디, 최대 투자국”

## 효성 조현준 회장 오찬 참석... 사우디 국영기업 아랍코와 탄소섬유 생산시설 건립 MOU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하고 공식 오찬을 주최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기 왕위계승자이자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맡은 '최고 실세'로 꼽히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랍코를 이끌고 있어 '석유왕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해 빈 살만 왕세자와 자리를 함께 했다. 효성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엔 사우디의 국영 석유기업이자 글로벌 종합 에너지 화학기업인 아랍코와 '사우디 아라비아 내 탄소섬유 생산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탄소섬유 기술 적용과 연구개발을 위한 양사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함께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했다. 공식 오찬에는 삼성전자 이재웅 부회장, 현대차그룹 정익선 수석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일제히 참석했다.

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박동기 롯데월드 사장, 최병환 CGV 사장 등 기업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사우디는 2016년에 석유산업에서 ICT를 중심으로 한 첨단 분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과 비전을 다각도로 협의했다. 아울러 건설·인프라·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ICT·원전·친환경 자동차·중소기업 등 미래산업 협력, 보건·의료·국방·방산·지식 재산 등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 문화·교육 등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제1위 해외건

설 주수국이고, 또한 중동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대(對)한국 투자국"이라며 "양국이 공동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많은 성과를 내 기쁘다. 한국이 번영을 누리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양국이 서로 배우고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를 준비한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국은 ▲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문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자동차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수소경제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건강보험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국방 획득 및 산업, 연구, 개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10건의 양해각서에서 서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재도전

## 14명 위원 추진단 발족... 미디어아트 전시 전략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재도전한다.

기존 유치 전략이 남도가 자랑하는 한국화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컨셉을 바꿔 미디어아트 등 미래형 예술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을 건립해 전시하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한다.

광주시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 추진단을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문병재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의 열여섯 위원은 다른 새로운 컨셉의 유치전략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이병훈 문화경제 부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 2명, 정순애 광주시의회 의원,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아시아문화원 관계자와 미술작가 등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추가 회의를 거쳐 전략을 다듬은 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분수령은 추진단이 건의할 '국립현대

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 타당성 평가 용역 조사'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분관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비 확보 작업에 나선다는 게 추진단의 기본 계획이다. 과거 광주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분관을 유치한다는 자체 계획을 세워 동문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던 점을 거론하며, 현재는 부지에 관한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국비 확보 등 절차가 예정대로 된다면 2021년부터 분관 설립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꾸준히 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말 용역비 예산 3억원을 올 해 국비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형호 기자 khh@

# 광주시, 조선시대 누각 '희경루' 복원 사업 추진

## 2022년 완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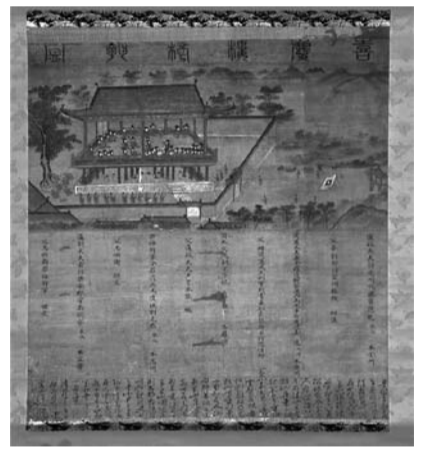
광주시가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기념해 조선 시대 누각으로 19세기까지 실존했던 희경루(喜慶樓) 중건(重建) 사업을 본격화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라도 천년을 기념해 남구 구동 광주공원 일원에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중층누각 형태의 희경루 중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주일보 2018년 1월 16일자 5면>

희경루는 조선시대인 1451년 건립된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누마루집 등을 갖춘 누각으로 지금의 동구 충장로 광주 충장로 우체국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33년 소실됐다가 1534년 증건됐으나 1866년 이후 다시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문화시설 개념으로 되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총사업비는 60(국비 25·시비 35)억원이며, 부지면적 2378.3㎡, 연면적 460㎡, 건축면적 230㎡ 규모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 소유인 희경루가 들어설 광주공원 일원 부지의 매입



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광주시는 7월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 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조선 명종 때(1540년대)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희경루 '榜畵'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 중인 보물 제 1879호)를 바탕으로 고증을 통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중건할 계획이다. 누각 시설과 함께 휴게 센터,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 출생아 수 37개월 연속 최저... 4월 출생 2만6천100명

출생아 수가 지난 4월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찍었다. 최소 기록은 37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700명(6.1%) 줄어든 2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6.2명이었다.

4월 출생아 수는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 월별 출생아 수는 계절·월 선호도 영향을 받아 통상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2016년 4월 이후 37개월간은 연속으로 최저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39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명(0.4%) 감소했다. 조사방률은 5.7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2200명이었다. 이 역시 1981년 집계 시작 이후 4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 건으로 1년 전보다 600건(2.9%) 감소했다. 이 수치도 1981년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다. 조혼인율은 4.7명이었다. 혼인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4월 이혼은 9500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9.2%)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2.3명이었다. 이혼은 4월 기준으로 2014년(957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 해남군 '농민수당' 첫 지급... 영암군은 조례제정 보류

영암군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해남군은 첫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해남군은 26일 옥천농협에서 명현관 군수와 이순이 군의회 의장, 윤상학 농민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수당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21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1만3688명의 신청인 중 1만 2487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수령증서명 후 수령하면 된다.

해남군의 농민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이 지급된다. 농

민수당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다. 영암군의 조례안은 분기별로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3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현재 전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부담이라는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뱌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19. 7. 2(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시: 2019. 6. 25(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청정비닷가 접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호순 남면 유미리 유미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절산비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원동 등 적합 부지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은 4억5천
- 서구 화정동 대주아파트 145㎡ 정남향 전망좋은 15층 2억5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완도군 완도를 망서리 도로접 산 지면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산구 쌍암동 대항빌딩 중의 2층 25㎡ 과밀집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미쇼·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면속마리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동 919㎡ 건평 1207㎡ 원동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동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기계는 공실 17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원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군 장동면 우사 허기지 땅 75368㎡ 우사는 4천여평 허가상담바람
- 강진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근거리 소형아파트 적합 19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물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림길 모델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